



8월 초 열린 청계사 여름캠프에서 100여 어린이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청계사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으로 의왕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포교 기반 다지기 '구슬땀'

의왕

의왕은 신도시 모두가 그렇듯이 기독교세가 압도적이다. 13만 인구 중 종교인구의 60% 이상이 기독교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인구는 20% 남짓에 불과했다. 사찰 수는 불과 10여 곳, 교회 및 성당 수는 적어도 10배 이상, 불교인구가 적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교인구가 10% 정도 늘어났다. 불교인구가 늘면서 불교 이미지도 좋아졌다. 의왕 제1의 사찰인 청계사와 신개념 도심포교당인 용화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허 스님의 출가자인 청계사는 선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수행도량. 3년 전 수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량을 정비, 경내 어디든 자리만 깔면 참선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내 전체가 법당이 됐다.

뿐만 아니라 거사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신설하고, 참선법회와 108좌회기도법회 등을 개설하는 등 수행활동성화에도 나서는 한편,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인 녹향원을 새롭게 꾸미고 한 달에 두 차례씩 불우이웃을 돕기 기금마련 행사를 여는 등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의왕 내손동에 자리잡은 용화사. 건물 형태와 디자인이 '여기가 절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평범하지 않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 놀란다. 구석구석이 마치 조형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공양간은 아예 깔러리고, 법당이나 찻집 역시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신개념의 현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나 신도들의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 조형으로 불자들이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청계사와 용화사 외에 천태종 대안사도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면서 지역불교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안산

'진흙 속에 핀 연꽃'. 안산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안산 불교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안산은 기독교세가 강한 곳이다.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교회 수는 500여 곳 이상으로 사찰 50여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산 불교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사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인데다, 큰 산이 없어 산중에 위치할 수 없다보니 사격을 제대로 갖춘 사찰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통적인 사찰 모습을 갖춘 곳은 쌍계사와 화림선원 두 곳 뿐.

고정신도가 적다는 점도 안산 불교가 안고 있는 애로점이다. 젊은층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주가 잦고 신심이 약하다. 불교와 무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안산의 스님들은 이런 여건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해냈다. '전법' 신세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불교를 무시하지 못한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지역 불교를 살려보겠다는 스님들의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안산사암연합회는 올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다. 사암연합회는 매년 안산시 불교음악제를 개최하는 한편, 안산불교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행동을 이끌고 있다.

개별 사찰들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법흥사, 유마정사, 다보사, 반야사, 보림선원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산 불교가 근근이 명맥을 잇고 있는 것도 어떻게든 지역 불교를 살려보겠다는 사찰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보림선원은 신도 교육·포교·복지 활동 등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고, 유마정사 역시 교육에 주력하면서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시흥

시흥 스님들은 한목소리로 '시흥처럼 불교가 뿌리내리기에 어려운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찰이 래야 10여 곳 남짓한데, 교회는 1000여 곳이 넘는다. 도저히 '계입'이 안된다. 밤이면 불 권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10여 개 사찰들도 반으로 쪼개져 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분열돼 있으니 시흥 불교는 말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부 사찰이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찰이 혜진선원이다. 학생회, 청년회, 합창단, 불교대학 등을 통해 젊은층 신도를 끌어들이고 있는 혜진선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포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은 두동강 나있는 사찰들 간의 화합이 이뤄져야 하고, 사찰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산과 서울로 분산돼 있는 불교 인구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

한명우 기자

경기 의왕·안산·시흥

의왕 지역민 쉽터로 사찰 개방...포교는 '땀'

안산 척박한 여건 딛고 '사암련'에 힘써어 줘

시흥 사찰간 불화 악재 속 묵묵히 청년포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교육·인권보호 등 정법전파 앞장

정명 스님 (안산 유마정사 주지)

정명스님은 10년 전 불교 방송 '자비의 전화'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안산 사암련 창립멤버로서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경전 강의 등 교육을 통해 도심포교에 주력하면서 무속이 성행한 안산에 정법을 심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간불사'를 가장 중요시 여겨 안산인권보호위원회를 창립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안산 소년원 법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장의 포교경험을 담은 '포교지침서'와 각종 경전을 부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 해설집'을 발간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안산사암련 법인화, 활동 기반 닦아

개운 스님 (안산 법흥사 주지·안산사암련회장)

안산사암련 창립멤버로서 오늘의 안산불교가 있기까지는 바로 개운 스님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사암련 회장을 맡아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사암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 체계적이고 안정



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산둥 중의대학에서 5년간 한의학을 공부,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한방불교병원을 설립해 불교의료복지를 실현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불교 불모지에 선원 열고 불심 깨워

승현 스님 (시흥 혜진선원 주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시흥에서 '불심 깨우기'에 발맞추어 갔다. 1988년 도심 속에 혜진선원을 열고 포교에 나서 불교에 무지했던 시흥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등 계층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활동으로 불교 인구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시흥신문 논설위원, 시흥실업구복연대와 시흥복지단체 운영위원 등을 맡는 등 지역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하고 시흥시민을 위한 불교음악회를 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978년 등단한 시인으로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내기도 했다.



주민 사랑받는 '산중 포교당' 가꿔

선중 스님 (시흥 대각사 주지)

다 쓰러져가는 대각사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중 포교당'으로 바꿔놓았다. 선중 스님

은 법당 문을 항상 열어놓고 누가 오든 편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기도객과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시민선방과 주말 참선법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30여년 화림선원 지키며 수행 한길

효탄 스님 (안산 화림선원 주지)

효탄 스님은 30여 년 동안 화림선원을 지켜오면서 화림선원을 수행도량으로 가꾸었다.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선방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수행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합창단과 거사회를 통해 신도들의 수행을 적극 유도하면서 안산 수행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포교에 나서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자원봉사 등 복지 매진

덕문 스님 (의왕 용화사 주지·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시대감각과 합리적인 사고가 돋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왕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가가는 포교, 화합하는 불교'에 대한 소신

이 확고한 덕문 스님은 상담 등의 맨투맨 포교전략과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 불자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회·청년회 법회를 개설하고 복지사업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여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수행도량이자 주민 쉽터로

성행 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풍경소리 회장)

불국사에서 10년 넘게 교육 포교 기획 총무 소임을 맡아 온 풍부한 경험을 지역 불교 발전에 쏟고 있다. 성행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지 3년 만에 청계사를 수행도량이자 지역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 서울구치소와 안양·경주교도소 상임법사 등 불교계와 의왕·경주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복지·사회 등 다방면 활동

보림 스님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교육·포교·복지·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돌보미 보시 운동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포교라는 소신으로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으며, 봉사와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동국대 대학원 장래문화학과를 수료하고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 실천불교학을 공부, 논문발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학구열도 높다. 좋은 책이 나오면 다량으로 구입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다. 스리랑카 법당인 '마하보디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복지활동 통해 불교활성화

도선 스님 (안산 다보사 주지·부국종합사회복지관장)

불교유치원을 하고 싶어서 출가했다는 도선 스님. 도심포교당인 다보사를 5년째 맡아오면서 교리강좌, 군부대 법회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5월 부터는 어린이법회를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안산 부국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아 개원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며,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열의가 높다.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처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써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9월 22일 출발(모집중)
티베트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차티켓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 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모험에 밀려 티베트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메랄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부처님 재세 시 왕림하셨던 만달레이 언덕, 세계 최대의 연옥좌불상(6백톤) "로카찬다" 미얀마 불교문화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 등 미얀마가 여러분을 붙든(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조
혜능 조사님을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